

《國語學 39》 별쇄본

## 한국어 단어결합론의 심화를 위하여

노마 히데키 (野間秀樹)

國語學會

2002.6.

## 한국어 단어결합론의 심화를 위하여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본고는 단어결합(언어)의 개념 정리와 한국어 단어결합론의 심화를 위한 제기이다. 명명적 기능을 가진 단위로서의 단어결합을 한국어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더욱 더 깊이 있게 기술할 수 있는 어휘론, 형태론, 통사론의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앞으로의 한국어 연구에 있어서 단어결합이 지니게 될 큰 의의를, 단어가 서로 결합되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풍요로운 장치로서 기능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핵심어 : 단어결합, 언어, 관용구, 어휘론, 접속어미, 명사분류, 격, 타동사, 범성, 대조연구

### 1. 들어가기

본고는 단어결합(언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단어결합론의 의의를 확인하면서 단어결합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글이다.<sup>1)</sup>

---

1) 단어결합에 대해서는 趙義成(1997)이 포괄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

## 2. 단어결합이란 무엇인가

### 2-1. “단어결합”과 “언어”라는 호칭

우선 단어결합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결합이란 구소련 소비에트 언어학의 큰 특징의 하나가 된 slovosochetanie의 번역어이다.<sup>2)</sup> 직역을 하면 “단어(slovo)결합(sochetanie)”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북한 문법론에서도 그대로 “단어결합”이라 부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쿠다[奥田靖雄]가 주도하는 “언어학 연구회”에 모인 연구자들이 “언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sup>3)</sup> 일본의 한 국어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어결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 2-2. 단어결합의 개념규정

단어결합의 개념규정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구소련의 소위 “80년 아카데미 문법” Akademija nauk SSSR(1982:79)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단어결합이란 통사론적 구조이며 일치(soglasovanie), 지배(upravlenie), 접합(primykanie)이라는 종속적인 연계(podchinitel'nye svjazi)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번역: 인용자)

여기서는 단어결합이 통사론적 구조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

2) 예를 들어 구소련 소위 “60년 아카데미 문법”에서는 제2권 통사론(sintaksis) 총 703 페이지 중에서 단어결합론에 115-352 페이지에 걸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러시아문법에서 단어결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3) “언어학연구회”는 소비에트 언어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어학의 연구단체로 간노[菅野裕臣](1984)는 “일본의 Vinogradov학파”라 지칭하고 있다.

일치, 지배 등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단어결합의 정의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위의 기술 중에서는 종속적인 연계<sup>4)</sup>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어들의 결합 중에서도 대등한 요소 두 개의 병렬은 단어결합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Loptina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언어학사전인 Jarceva(1990:469)에서 더 알기 쉽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종속적인 문법적 관계를 기초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실질적인 단어들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통사론적 구성체. (번역:인용자)

“실질적인 단어들의 결합”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자. 소위 허사와 실사의 결합은 단어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이 관점은, 단어결합론에서는 기본적인 합의를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실질적인” 단어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어디까지나 통사론적인 단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실질적인 단어들의 결합일 것, (2) 통사론적인 단위일 것—이 두 가지는 구소련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단어결합론에서는 기본적인 명제이다. 이 두 가지는 북한 문법에서도 간결한 정의를 통해 과학원(1962:863)이 일찍이 확인한 바 있다:

두 개 이상의 자립적 단어가 문장론적 관계를 통하여 결합된 것.

여기서 말하는 문장론이란 통사론에 해당된다. 북한 문법의 영향이 짙은 중국의 최윤갑 외(1984)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의미-문법적으로 연결되고 문장의 구성요소로 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의 결합.

4) 趙義成(1997:4)에서는 podchinitel'nye svjazi를 “종위적인 어울림”으로 번역하고 있다. “zavisimyj”를 “종속적”으로 번역하여, 그것과 구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종속적인 연계”라고 번역하였다.

일찍이 최현배(1937)가 “이은말”을 “연어”라고 부른 바가 있다. 그 후 한국에서는 연어 또는 단어결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어”라는 호칭을 사용한 몇 편의 논고들이 나타났다. 김진해(2000:32-36)가 그 논고들을 정리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와 북한의 연구 성과를 흡수한 논고는 눈에 띄지 않는다. 즉 한국에서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단어결합론이 거의 계승되지 않았던 것이다.

### 2-3. 일본어학에서의 단어결합 개념규정

일본어학에서 단어결합은 “연어”라는 이름으로 오쿠다[奥田靖雄](1960, 1968-70, 1978)가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를 이어받아 스즈키[鈴木重幸](1972:25)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연어란 명명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와, 그것을 수식하여 그 명명적인 의미를 한정하는 한 개 이상의 (명명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 구성되어, 전체가 하나의 합성적인 명명적 기능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예를 들면:

mati-e kaeru (농촌으로 돌아가다)

mati-kara kaeru (도시에서 돌아가다)

mati-kara mura-e kaeru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다)등은 연어이며

각각 전체가 일정한 목적지나 일정한 출발점의

한정을 받은 일정한 이동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명명적인 의미로 말하는이나 그 입장에 관계가 없는 비진술적인 것이다.

일본의 일본어학에서의 연어론은 이 정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2-4. 단어결합이 아닌 것

(1) 실질적인 단어들의 결합일 것, (2) 통사론적인 단위일 것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흔히 collocation으로서 논의되는 것들을 비롯하여 많은 것들이 단어결합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다음에 그 몇 가지를 보자.

### 2-4-1. 소위 조사(체언어미)류와 실사와의 결합

격조사나 특수조사는 실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 실사와의 결합은 단어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2-4-2. 용언어미류와 실사와의 결합

“-고 있다”, “-고 말다”, “-면 -르수록” 등의 용언어미류와 실사와의 결합 역시 단어결합이 아니다.

### 2-4-3. 소위 후치사류

예를 들어서 “-에 대하여/대해서/대한”, “-에 의하여/의해서/의한”과 같은 구조체는 단어결합에서 제외된다. 전자를 예로 들면 이 구조는 조사(어미) “-에”와 결여용언(defective verb)인 “대하여/대해서/대한”의 조합이다. 종결어미를 취한 형태인 종지형을 가질 수 없고 또 다양한 접속형(converb)도 취할 수 없다. 즉 “대하다”는 용언으로서의 온전한 패러다임을 그릴 수 없으므로 일종의 결여용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이 “대하여”류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어가 아닌 “-에”와의 결합은 단어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

### 2-4-4. 기능적인 단위 = 문법적인 단위

위의 2-4-2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어떤 요소들의 결합이 문장 중

5) 이 “대하여/대해서/대한”류를 간노[菅野裕臣](1988)는 “후치사”라고 부르고 있다.

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단위, 예를 들어 “-리 수 있다”, “-기 때문에” 등의 문법적인 단위는 단어결합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 2-4-5. 문장

실제 발화로서 실현된 문장(sentence)은 단어결합이 아니다. 단어결합은 어디까지나 문장을 구성하기 이전의, 문장보다 더 작은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4장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 2-5. 단어결합과 관용구

단어결합과 관용구의 구별 역시 중요하다. 단어결합이 언제나 관용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 관용구가 반드시 단어결합인 것도 아니다. 다음 “비행기 태우다”와 “손이 크다”에서 각각 a)는 단어결합, b)는 단어결합이자 관용구이다:

a) 그렇게 어린 아이를 혼자 비행기 태웠단 말이야?

b) 자꾸 비행기 태우지 마. 그런다고 뭐 안 나와.

a) 너는 손이 너무 커서 이 장갑은 안 들어갈 거야.

b) 이 집 주인은 손이 너무 커서 남는 게 하나도 없겠다.

관용구를 어휘의 일종으로, 즉 단어로써 다루고자 하는 주장도 있으나, 위의 b)와 같은 구조체는 단어결합으로서의 관용구이지 결코 단어 그 자체는 아니다. “손이 너무 커서”처럼, “너무”와 같은 다른 문장성분의 삽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b)류가 단어가 아닌 좋은 증거이다.

### 3. 단어결합과 의미

#### 3-1. 단어결합과 명명 기능

본고에서는 단어결합이 가지는 사물에 대한 명명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물에 대한 명명의 기능을 가지는 단위로서는 물론 단어가 최소의 단위일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별을 보다”라는 두 단어의 결합은 “난 별을 봤어.”, “너도 별을 볼래?”, “난 지금 별을 보고 있어요.”, 등 용언의 형태는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도 “별을”과 “보다”라는 두 단어의 의미적인 관계는 격지배 관계와 함께 변함 없이 유지된다. 즉 “별을 보다”라는 결합 전체가 사람의 영위에 대한 하나의 명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빵을 먹다”, “옷을 사다”, “소설을 읽다” 등, 결합되는 단어가 바뀌어도 사정은 똑같다. 단어결합은 이러한 명명 기능을 가지는 결합체이다. 두 개 이상의 단어의 결합체가 단어 하나 하나의 단순한 결합체가 아니라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별을” + “보다”가 즉 “별을 보다”인 것은 아니다. 소위 관용구적인 것이든 아니든, 또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든 아니든, “별을 보다”는 그 전체가 하나의 명명인 것이다.

#### 3-2. 단어결합과 어휘적인 의미

단어결합은 어휘론과 통사론을 잇는 구조체이기도 하다. 흔히 “어휘적인 의미”(lexical meaning)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어결합을 빼고는 논의할 수 없다. 어휘론에서는 “동사 <먹다>의 어휘적인 의미”라는 식으로 흔히 논의되지만, 이런 기술은 아주 위험하다. 어휘론, 문법론에서는 동사 “먹다”의 의미를 논의할 때 기실 “밥을 먹다” 정도만을 상기하며 논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이런 잘못은 기존의 문법 연구에서는 빈번히 발견된다.



예를 들면 아스펙트에 의한 동사분류론은 유타니(油谷幸利) (1976)의 선구적인 연구 이래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 많은 논고들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항목은 “먹다”나 “가다”라는 추상화된 어휘 항목들이었다. “<먹다>의 어휘적인 의미”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먹다”는 “밥을 먹다”만이 아니다. “빵을 먹다”, “약을 먹다”처럼 타동적인 의미가 아주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아침을 먹다”, “뇌물을 먹다”, “나이를 먹다”, “마음을 먹다”, “더위를 먹다”, “접을 먹다”, “애를 먹다”와 같은 것도 있으며, 또 “욕을 먹다”, “꿀탕을 먹다”, “한방을 먹다”처럼 거의 수동적인 의미가 되는 “먹다”까지 있다. 각각 수동형 “먹히다”를 만들 수 있는가, 또는 사역형 “먹이다”를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도<sup>6)</sup> “먹다” 그 자체의 의미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먹다”의 총체적 의미를 등한시한 채, 기존의 문법가들은 “빵을 먹다”, “약을 먹다” 정도를 가지고 “먹다”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한 “빵을 먹고 있다”와 같이 “-고 있다”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더위를 먹고 있다”는 가능한가? 아스펙트적인 성질조차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가다”는 한층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학교에 가다”, “학교로 가다”, “학교를 가다”, “지름길로 가다”, “구경을 가다”는 그 모두가 “-고 있다”형과 “-어 있다”형을 가지는 것인가? “납득이 가다”, “십년을 가다”는 어떨까?—이렇게 볼 때, “동사 <가다>의 아스펙트적인 의미”라고 말하는 논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아스펙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적어도 하마노우에[濱之上幸](1991)가 나타날 때까지는 적잖게 있어 왔다. 이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 방법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동사는 동사 그 자체만으로는 어휘적인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더위를 먹다”나 “납득이 가다”와 같

6) 단어의 의미별로 수동형, 사역형의 유무를 자세히 제시한 선구적인 사전으로 홍재성 외(1997)가 아주 유익하다.

이 최소한 단어결합의 형태를 취해야만 그 어휘적인 의미를 운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동사를 예로 들었지만, 많은 적든 단어가 단독으로 의미를 결정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단어는 문장의 구성 단위이기는 하지만 문장을 언제나 직접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의미적으로 단어와 문장 그 중간의 단어결합이라는 구조체를 형성하면서 문장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단어는 다른 단어와 결합함으로써 단어 그 자체의 뜻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며 동시에 문법적인 성질을 확고히 한다. 단어결합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소박한 어휘론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어휘와 문법 사이를 잇는 장치로서도 우리는 단어결합을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 4. 단어결합의 계층적인 위치와 분류

##### 4-1. 단어결합과 문장은 어떻게 다른가

단어결합을 둘러싼 언어의 단위는 다음과 같은 계층을 이루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밑에 있는 단위가 위에 있는 단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 1) 텍스트(text)/담화(discourse)<sup>7)</sup>
- 2) 발화(utterance)
- 3) 문장(sentence)

7) 여기서는 쓰인 언어(written language)의 실현을 텍스트로, 말해진 언어(spoken language)의 실현을 담화로 구별한다. 양자는 언어의 존재양식으로서 결정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쓰인 언어와 말해진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는 노마[野間秀樹] (1996a:17-18, 2002:73-74) 참조.

- 4) 절(clause)
- 5) 단어결합(word-combination = slovosochetanie)
- 6) 단어(word)

다만, 아직까지 단어결합과 구(phrase)의 관계 및 단어결합과 절의 관계에 대한 조감도를 제시한 연구는 없다.

#### 4-2. 단어결합과 범성

실제 발화로 실현되는 문장은 단어결합보다 더 큰 단위인데 단어결합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문장에는 반드시 범성(modality)이 수반되는데 비해, 단어결합에는 범성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의 범성은 소위 진술성(predicativity = predikativnost')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취급한다.<sup>8)</sup> “노래를 부르다”라는 두 단어의 결합체는 단어결합인데 이 결합체 자체가 그대로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난 슬플 땐 언제나 노래를 부르다”, “그럴 땐 노래를 불러”, “나도 노래를 불렀지”, “저기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우리 형이야”처럼 반드시 일정한 각각의 범성들이 수반된다. 이처럼 단어결합은 어디까지나 명명으로서의 단위라는 점에서 단어와 같은 성격을 보이고 동시에 어떠한 범성적 요소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단어와 궤를 같이 한다.

다만, 단어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단어결합이라는 단위를 매개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불!”, “불이야!”와 같은 소위 일어문(一語文)의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단어결합이 문장이 될 때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부르다”처럼 동사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것은 문장에는 범성이 수반된

8) 범성(modality)과 서법(mood)에 대해서는 노마[野間秀樹](1988, 2002:123-129) 참조.

다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가 되기는 하지만 소위 “형태”만이 법성을 지탱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선하다”나 “일로 바쁘다”라는 단어결합이 “눈에 선하다”나 “일로 바쁘다”라는 문장으로 실현된다면 소위 “형태”는 바뀌지 않아도 법성은 수반되는 것이다:

“일로 바쁘다”:

단어결합. 프로소디를 수반하지 않음. “바쁘다”는 사전형.

“일로 바쁘다.”:

문장. 프로소디를 수반함. “바쁘다”는 “한다”체 종지형.

단어든 단어결합이든 그들이 문장이 되는 순간에 억양, 강세, 크기 등 프로소디(prosody)를 드러내는데 이 프로소디 역시 법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device)인 것이다. “불?”, “불!”과 같은 일어문에서 드러나는 프로소디는 프로소디가 얼마나 큰 법성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를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sup>9)</sup>

## 5. 품사의 하위분류와 단어결합

### 5-1. 품사의 하위범주 설정과 단어결합론

단어결합을 논의하는 데 있어 품사의 하위분류에 주목하면 훨씬 체계적인 기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명사나 동사의 하위범주를 미리 준비

9) 구소련의 Akademija nauk SSSR(1954)에서는 인칭, 시제, 법성(modalnost')과 같은 통사론적 범주가, “전형적”이 아니라는 점과 억양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어결합과 문장이 다르다고 기술하고 있다. 趙義成(1997:5) 참조. 본고에서 진술성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법성을 문장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삼은 것은, “불?”, “불!”과 같은 명사문의 경우를 비롯하여 비술어문에서 시제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술어문과 술어문에 대해서는 노마[野間秀樹](1996c:138-139, 2002:23-24) 참조.

해 놓는다면 명사와 동사의 결합에서 명사가 어떤 하위범주에 속하는 명사이며 동사는 어떤 하위범주에 속하는 동사인가 하는 기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단어의 class 분류를 단어결합론에 도입함으로써 한층 더 깊은 기술이 가능해진다.

## 5-2. 한국어의 명사분류와 단어결합의 기술

한국어의 전면적인 명사분류의 하나의 시도로서 노마[野間秀樹](1990, 2002)가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명사를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여 분류한 논고이다:

- (1) 어떤 격어미(격조사), 접미사를 취하는가
- (2) 어떤 명수사(counter)(유별사=classifier)를 택하는가

이 논고는 형태상의 조건을 최우선의 조건으로 삼고 그 다음에 어휘적인 의미라는 조건을 검토하였다. “형태에서 의미로”라는 조건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분류는 그런 의미에서 어휘-문법적(lexico-grammatical) 분류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할 지면은 없지만 이러한 하위범주를 이용한, 단어결합의 기술을 확인하자. 형용사 “밝다”와 동사 “가다”의 단어결합 유형의 일부만을 이하에 제시한다:

구체(KON) / 장소(LOK) / 사항(AFR) / 위치(POZ)-가/-이 밝다

예: 그 방이 더 밝아요.

인간(HOM)-가/-이 사항(AFR) / 추상(ABS) / 활동(AFT) / 영위(AGO)

-에 밝다.

예: 그 사람은 야구에 밝아요.

장소(LOK) / 위치(POZ)-에 가다

예: 형은 학교에 갔습니다.

인간(HOM)-한테/-에게 가다

예: 형한테 가 봐.

장소(LOK) / 위치(POZ)-를/-을 가다

예: 이 길을 가십시오.

영위(AGO)-를/-을 가다

예: 구경을 갔습니다.

## 6. 단어결합과 격

### 6-1. 단어결합과 격에 관한 연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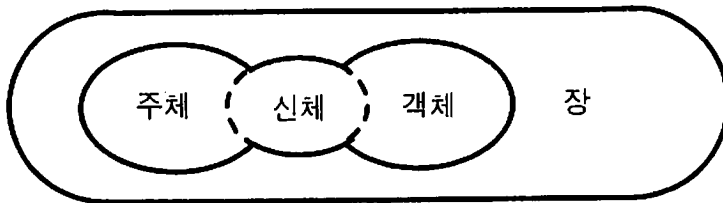
단어결합론은 격에 관한 연구 또는 격과 용언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실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1960년대에 나온 “-에게”격에 관한 韓南洙(1966)가 선구적인 시도였고, “-로”에 관한 지무라[千村哲也](1987)의 시도가 있는 후, 계량적인 수법의 도입과 명사분류를 이용한 “-를/-을”에 대한 노마[野間秀樹](1993a,c)는 “-를/-을”의 용례 3044개를 분석하여 대격과 동사의 단어결합을 유형화하였다. 그 후, 2513개의 “-에서”격의 용례를 분석한 趙義成(1994), 3285개의 “-로”격 용례에 대한 陳滿理子(1996a,b)가 각각 단어결합의 유형을 이용해서 격의 용법을 기술하고 있다.

### 6-2. “-를/-을”격과 타동사의 결합

단어결합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재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명사와 타동사의 결합이다. 노마[野間秀樹] (1993a,c)는 “-를/-을”격과 타동사의 결합을 다음과 같이 분류제한 다음 타동사의 단어결합 유형을 생각할 때, 다음 (1)-(4)의 네 가지 요소에 주목하였다:

- 여격 타동사: “-를”격과 “-에게/-한테”격이 공기할 수 있는 동사
- 비여격 타동사: “-를”격과 “-에게/-한테”격이 공기할 수 없는 동사
- 향격 타동사: “-를”격과 “-에”격이 공기할 수 있는 동사
- 비향격 타동사: “-를”격과 “-에”격이 공기할 수 없는 동사

- (1) 동작의 주체
- (2) 주체의 신체
- (3) 주체가 관여하는 객체
- (4) 주체와 객체를 둘러싸는 장(場)



위의 (1)에서 (4) 중에서 어느 것을 “-를/-을”격으로 설정하는가, 그리고 동사로 나타내는 동작의 수행이나 상태의 추이는 주로 어디서 행해지는가를 생각하면 “-를/-을”격과 타동사의 결합이 나타내는 의미에는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sup>10)</sup>

사역동사나 공기격을 필요로 하는 동사를 전형으로, 동사에 따라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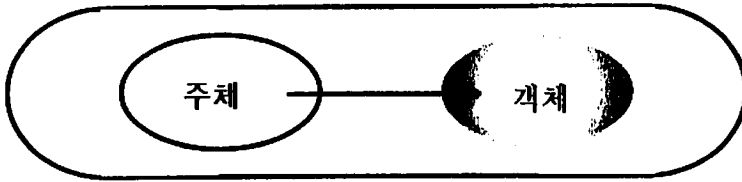
10) 이 때, 주체와 객체는 이항대립적인 대립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주체의 신체라는 중의적인 존재가 있어 주객 사이를 맺어 준다. 신체를 나타내는 신체명사는 재귀적인 동작을 비롯하여 주체와 객체 사이를 쉽게 이행할 뿐더러 때로는 신체는 주체에 있어서 장이 되기도 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체나 객체는 인간이 아니라 사물일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체에 속하는 사물이 인간에서의 신체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장(場)이란 텍스트 또는 담화의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주체가 존재하는 공간적 혹은 시간적인 자리이며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이것 역시 항상 객체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를”격이 객체적=상황적 대상으로서 설정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객체적인 논항이 복수가 될 수도 있다.

“-를”격과 동사의 결합으로는 크게 나누어 다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 6-2-1. 객체적인 대상으로의 작용



가장 타동성(transitivity)가 강한 그룹이다. “-를”격에 서는 대상은 주체와 대치하는, 명확한 윤각을 가진 객체로서 설정된다. 이 그룹의 동사에서 만들어진 수동형을 흔히 볼 수 있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시킨다는 사역 구조도 이 그룹에 속한다. 이 그룹에는 여격타동사와 비여격타동사 두 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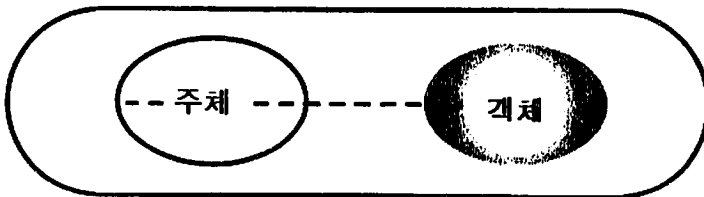
- 1) 부여동사: [사물 + -에; -에다 물건 + -를]  
 “꽃병에 물을 담다” “도장을 찍다” “등짐을 지다” “논바닥에 불을 지르다”
- 2) 종사동사: [장(場) + -에 일 + -를]  
 “파출소에 신고를 하다” “대학에 진학을 하다” “척도를 어디에다 두다”
- 3) 조작동사: [물건 + -를]  
 “문을 열다” “벨을 누르다” “공을 차다” “다이얼을 돌리다”
- 4) 대신(對身)동사: [타인의 신체+ -를]  
 “옆구리를 찌르다” “손을 잡다” “입을 틀어막다”
- 5) 가공동사: [도구/수단+ -로 물건+ -를]  
 “손바닥으로 신발을 닦다” “불을 끄다” “흙을 파다” “책을 싸다”



- 6) 변성동사: [사물+ -를]  
“그릇을 비우다” “집을 비우다” “대답을 얼버무리다”
- 7) 양육동사: [생물+ -를]  
“누에를 치다” “육남매를 키우다” “여자를 기르다”
- 8) 생산동사: [생산물+ -를]  
“사표를 쓰다” “사진을 찍다” “커피를 타다” “기름을 짜다”
- 9) 전환동사: [사물+ -를 동작후의 사물+ -로]  
“가방을 자기 것으로 만들다” “키를 핑계삼다” “목적지를 부산으로 정하다”
- 10) 인정동사: [-를 -라고/-이라고; -게; -처럼 정신동사]  
“자기를 내 전부라고 생각하다” “고모를 못마땅하게 여기다”
- 11) 수여동사: [사람; -에게; -한테 사물; -를]  
“편지를 보내다” “열쇠뭉치를 가져오다” “물건을 팔다”
- 12) 지시동사: [사람+ -에게; -한테 사물+ -를]  
“경위를 설명하다” “비밀을 털어놓다” “데이트를 신청하다”
- 13) 탈취동사: [사물+ -에서 사물+ -를]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다” “돈을 훔치다” “잡초를 뽑다”
- 14) 대인동사: [사람+ -를 -에게; -한테는 취하지 않는다]  
“동창을 만나다” “아버지를 돕다” “부모를 설득하다” “강과장을 찾아가다”
- 15) 행위동사: [사람+ -를 -에게; -한테는 취하지 않는다]  
“신부를 안다” “전신으로 승객을 밀다”
- 16) 처우동사: [사람+ -를]  
“속으로 어머니를 욕하다” “사람들을 탓하다” “민수를 힐난하다”
- 17) 언어동사: [사람+ -에게; -한테; -더러]  
“의견을 말하다” “책임을 묻다” “용서를 빌다”
- 18) 가감동사: [사물+ -를]  
“가치를 높이다” “키를 낮추다” “값을 깎다”

- 19) 사역동사-인간사역동사: [사람+ -를]  
 “시부모를 긴장케하다”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들다”
- 20) 사역동사-사물사역동사: [사물+ -를]  
 “부부별로 노래를 시키다” “결혼을 시키다”
- 21) 속박동사: [사람+ -를 파생동사 -에게; -한테는 취하지 않는다]  
 “신랑을 애태우다” “우리를 괴롭히다” “신부를 올리다”
- 22) 강제동사: [사물+ -를 접미사 -이 -히 -리 -기 등으로 형성되는  
 파생동사]  
 “옷을 입히다” “수갑을 채우다” “옷을 벗기다”
- 23) 지령동사: [사람+ -를; -에 -로 등]  
 “딸을 대학에 보내다” “대청으로 그를 맞아들이다”
- 24) 비교동사: [사람 등+ -를]  
 “동식을 서너 걸음 앞서다”
- 25) 공동동사: [인간명사+ -과/-와; -하고]  
 “대화를 나누다” “이야기를 주고받다” “연애를 하다”
- 26) 처리동사: [사물+ -를]  
 “얘기를 시작하다” “회사를 그만두다” “계획을 세우다”

6-2-2. 객체적 대상으로의 주체내적인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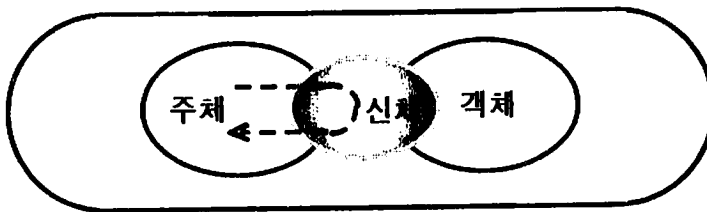


대상이 주체 밖에 있어도 동작 자체는 한결같이 주체내에서의 작용이 주가 되는 그룹이다. 즉, 음식동사나 지각동사·정신동사와 같이 “-를” 격의 대상이 명백히 객체의 위치에 있는 것에서부터, 생리동사처럼 “-를” 격의 대상이 “숨”이나 “눈물” 등 주체에서 나온 것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또한 그 대부분이 비여격타동사이다.

- 1) 음식동사: [음식물+ -를 음식을 나타내는 동사]  
 “밥을 먹다”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다”
- 2) 지각동사: [사물, 사람+ -를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  
 “사진을 보다” “얘기를 듣다” “엄마를 쳐다보다”
- 3) 정신동사: [객체적대상+ -를 정신활동을 나타내는 동사]  
 “사실을 알다” “나를 모르다” “남편을 좋아하다”
- 4) 생리동사: [신체에 관한 현상명사 등+ -를 생리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한숨을 쉬다” “고함을 지르다” “코를 골다”

### 6-2-3. 주체에의 재귀적인 작용



이 그룹은 “-를”격의 대상이, 주체내 특히 마음 속에 있는 것이나 신체에 관한 것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의미적으로는, 동사가 나타내는 작용이 넓은 의미에서 재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단어 결합 전체로는 자동사적인 의미가 될 경우가 많다. 비여격동사가 많으나 심리동사나 표정동사에는 여격동사도 간혹 있다.

- 1) 심리동사: [주체내의 대상+ -를 정신활동을 나타내는 동사]  
 “정신을 차리다” “화를 내다” “집을 먹다”
- 2) 표정동사: [표정 등+ -를]  
 “미소를 짓다” “포즈를 취하다” “태도를 바꾸다” “목소리를 가다듬다”
- 3) 착용동사: [의복+ -를 착용을 나타내는 동사]

“옷을 입다” “이불을 뒤집어쓰다” “화장을 고치다”

4) 탈의동사: [의복+ -를 제거를 나타내는 동사]

“모자를 벗다” “땀을 닦다”

5) 상실동사: [사물+ -를 상실을 나타내는 동사]

“명예를 버리다” “손을 뿌리치다” “버스를 놓치다”

6) 신체동사: [주체자신의 신체+ -를 동작동사]

“손으로 입을 막다” “고개를 내밀다” “이를 갈다” “눈을 비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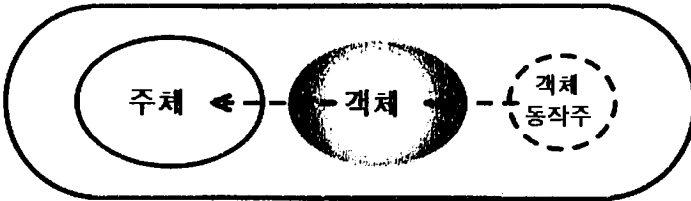
7) 출몰동사: [주체자신+ -를 출몰을 나타내는 동사]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다” “모습을 드러내다”

8) 소유동사: [사물+ -를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힘을 가지다” “관심을 갖다”

#### 6-2-4. 개체적인 대상에서부터의 주체에의 작용



타동사인데도 타동성이 아주 약하며 의미상으로는 수동적인 성격이 짙은 그룹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동형을 만들 수 없다.

1) 수신동사: [사람+ -에게;-한테]

“조사를 받다” “소개를 받다” “망신을 당하다” “가방을 빼앗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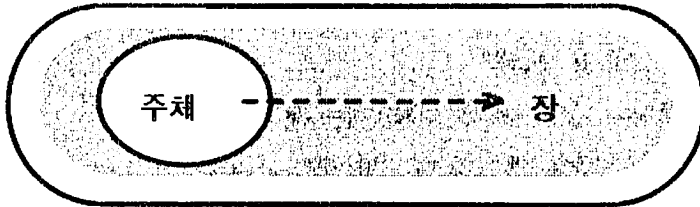
2) 향수동사: [사람+ -에게서;-한테서]

“편지를 받다” “옷을 빌리다” “월급을 타다”

3) 수용동사: [사물+ -를]

“시험에 백점을 받다” “상처를 입다” “충격을 받다”

6-2-5. 상황적인 대상으로의 관여



장소나 때, 환경 등 상황적인 대상으로 “-를”격이 설정된 그룹이다. 이들 동사를 자동사로 보는 입장도 있으나 여기서는 타동사의 하위범주로 간주한다. 타동성이 희박하며 수동형을 만들 수 없다. 기본적으로 비여격타동사이다.

- 1) 이동동사: [장소, 사람+ -를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학교를 가다” “우리집을 찾아오다” “민수를 찾아가다”
- 2) 외출동사: [영위동사+ -를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구경을 가다” “일을 나가다”
- 3) 이탈동사: [장소+ -를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집을 나가다” “커피숍을 나오다”
- 4) 왕래동사: [장소+ -를 이동 등을 나타내는 동사]  
“들길을 건다” “하늘을 날다” “계단을 오르다”
- 5) 경험동사: [체험, 환경+ -를]  
“첫날밤을 맞다” “시험을 앞두다” “반나절을 헤매다”

지금까지 보아 온 단어결합 유형을 기술함에 있어, 대격에 오는 명사를 제5장에서 제시한 “밝다”와 “가다”의 예처럼 명사의 하위분류로 이용하면 더욱더 기술이 정밀해질 것이다. 공기격 등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를>격과 용언의 결합 분류 일람

공기격		<-를>격체언의 주된 설정 위치 ( )				
		주체내	신체 등	객체적 인간	객체적 사물	공간·시간
6- 1						
향격 타동사	-에					付與動詞
여격 타동사	-에게					從事動詞
	-에게					授與動詞
	-에게					提示動詞
	-에게					事物使役動詞
	-에게					強制動詞
	-에게; -더러					言語動詞
	(-로)					加工動詞
						生産動詞
						操作動詞
						處理動詞
						變成動詞
비여격 타동사	-에게 불가	對身動詞	對人動詞			
	-에게 불가		行爲動詞			
	-에게 불가		處遇動詞			
	-에게 불가		指令動詞			
	-에게 불가		人間使役動詞			
	-에게 불가		束縛動詞			
	-에게 불가		比較動詞			
	-에게 불가 ; -하고					共同動詞
-에게 불가					養育動詞	
이격 타동사	-에서					奪取動詞
	-로					轉換動詞
	-라고; 처럼 등					認定動詞

공기격		<-를>격 체언의 주된 위치 설정( )				
		주체내	신체 등	객체적 인간	객체적 사물	공간·시간
6 - 2						
비여격 타동사	-에게 불가	食飲動詞				
	-에게 불가	知覺動詞				
	-에게 불가	精神動詞				
		生理動詞				
6 - 3						
		心理動詞				
		表情動詞				
비여격 타동사	-에게 불가	着用動詞				
	-에게 불가	脫衣動詞				
	-에게 불가	身體動詞				
	-에게 불가	喪失動詞				
	-에게 불가	所有動詞				
	-에게 불가	出沒動詞				
6 - 4						
비여격 타동사	-에게	事物受身動詞				
	-에게	人間授受動詞				
	-에게;(-에게서)	享受動詞				
		受容動詞				
6 - 5						
비여격 타동사	-에게 불가	移動動詞				
	-에게 불가	外出動詞				
	-에게 불가	離脫動詞				
	-에게 불가	往來動詞				
	-에게 불가	經驗動詞				

## 7. 단어결합론의 심화를 위하여

### 7-1. 단어결합론에서의 명사분류의 의의

명사분류가 단어결합론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 우선, 5와 같은 명사분류는 몇 가지 조건을 이용한 어휘-문법적인 분류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 범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출된 범주가 그 한 단계 위의 층위에 있는 단어결합의 유형과 어떤 연관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명사에 속하는 단어가, 어떤 유형을 이루며 한 층 위의 단어결합의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어 - 단어결합 - 문장]으로 이어지는 내적인 구조를 관찰하는 기제임에 틀림없다. 단어에 내재된 성격이 문장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은, 바로 어휘와 문법과의 상관구조의 모습인 것이다. 단어는 문법이라는 틀 안에 그냥 어휘항목으로서 들어가는 단순한 아이টে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단어결합이라는 골격을 형성하며 문장을 지탱하는 풍요한 내실을 가지는 존재로서 언어 연구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 7-2. 품사의 하위범주와 단어결합 기술

위의 명사분류에서 논의한 품사 하위분류의 의의는 모든 품사에 해당된다. 어휘론은 앞으로 품사 내부의 단어 분포를 더 세밀히 조사하여 품사 내부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여야 한다.<sup>11)</sup>

11) 그러한 하위 범주 설정에 있어서 분류는 자의적인 조건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객관적인 조건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뒤뮴성], [-뒤뮴성]과 같은 “의미자질”이라는 사고방식은 단어의 분류와는 원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노마[野間秀樹] (1990:6-7, 2002:268-270) 참조.



### 7-3. 통사구조론에 대한 단어결합론의 기여

단어결합은 “나는 [머리가 아파]”와 같은 이른바 “이중주어문”의 고찰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趙義成(1997:24-25)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중주어문을 단일주어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단어결합론이 통사구조론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는 흥미로운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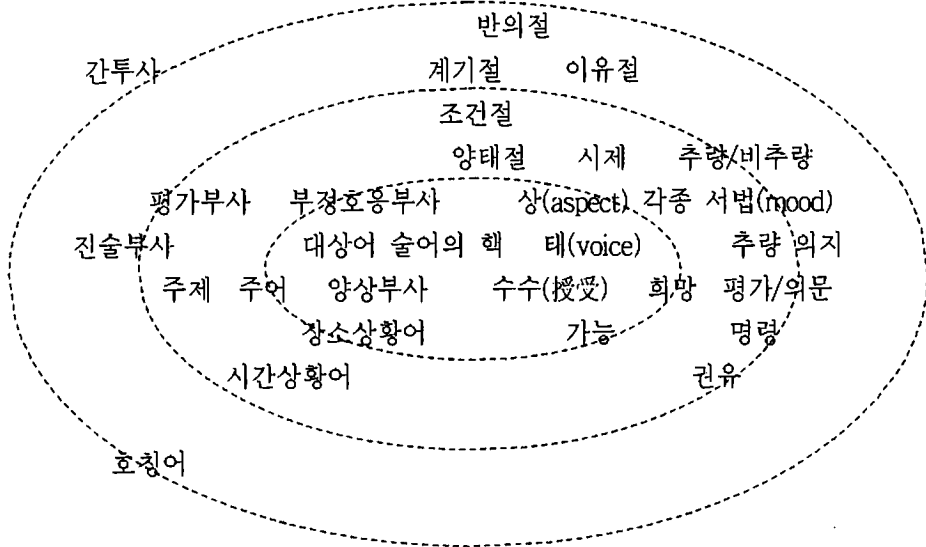
그리고 단어결합론은 분류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대상을 유형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의 과정이지 우리가 다다를 도 달점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단어결합론이 향할 곳은 어디인가? 현단계에서는 우선 단어결합론과 통사구조론과의 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즉 문장성분론과 단어결합론의 연관, 논항구조론과 단어결합론의 연관, 결합가(結合價) 이론과의 연관 등, 구체적인 단어를 핵으로 통사구조와 단어결합의 연관을 조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sup>12)</sup>

### 7-4. 문장의 계층구조와 단어결합

노마[野間秀樹](1996 c, 1997b, 2002)에서 한국어 문장에는 명제 (proposition)-법성 (modality)을 관철하는 계층구조가 존재함을 제기한 바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개념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성분이나 절 등에 포섭관계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12) 이런 관점에 설 때, 100만 어절을 대상으로 한 말뭉치에서 1087 항목 기초 어휘의 용례를 의미별로 빈도 조사한 서상규 외(2000)와 같은 업적은 문법연구를 고무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홍재성 외(1996)가 <가능성으로서의 단어결합>을 그리려고 했다면 서상규 외(2000)는 <있는 그대로의 단어결합>의 양상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문장의 계층구조 개념도



[[[TV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밥부터 먹어라]  
 [[[ 양태절 ] 조건절 ] 이유절 ] 주절 ]

동사의 단어결합은 문장과 절의 핵을 이루는 구조체이다. 단어결합은 절과 절의 경계를 건널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성급한 단정을 내리기는 힘든 부분이다. 아직 이러한 계층구조와 단어결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 앞으로의 연구에 기대된다.

### 7-5. 문법형태 연구에 대한 단어결합론의 기여

문법형태에 대한 연구에도 단어결합론이 기여하는 바는 크다. 예를 들어 접속어미와 접속형(converb)에 대한 연구<sup>13)</sup>가 그것이다. 일본에서

13)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접속어미와 접속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權在淑(1992, 1994a, 1994b)에 의한 “하니까”형, “해서”형, “해”형의 연구, 노마 [野間秀樹](1993b)의 “하다가”와 “했다가”형, 시바[紫公也](1994)의 “하면서”, 鄭玄淑

요 근래 활발히 발표된 논고의 연구 결과 속에는 단어결합론, 그 중에서도 동사 단어결합과의 연관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權在淑(1994a:94)에서는 “의지적-긍정적-동작적” 성격을 지닌 동사가 “-아/-어”형 및 “-아서/-어서”형을 취하면 “동작의 선행”의 의미가 되기 쉽고, “비의지적-부정적-상태적” 성격이 강한 용언의 경우에는 “원인, 이유”의 의미가 되기 쉽다는 경향을 자료의 수적인 분포로서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용언의 성격이란 용언을 주도적인 단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결합의 성격인 것이다. 즉 어떤 용언이 하나의 용언어미를 취하면서 접속형이라는 형태를 이룰 때, 그 용언은 이미 단어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용언 단어결합의 유형마다 당해 접속형이 어떤 의미를 실현하는가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7-5-1. “해서”형과 단어결합

동사 단어결합이 “해서”형을 취할 때를 살펴보자. “학교에 가다”라는 동사 단어결합이 “학교에 가서”가 되면 그것은 “학교에 가서 공부했다”처럼 거의 대부분이 동작의 선행을 나타낸다. 그리고 “돈이 없다”라는 존재사 단어결합이 “돈이 없어서”라는 형태를 취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원인, 이유를 나타내게 된다.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이것은 단순히 용언 그 자체만으로 접속형의 의미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이 가다”라는 동사 단어결합이 같은 “해서”형을 취하여 “금이 가서”가 되어도 “학교에 가서”와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이 컵은 금이 가서 못 쓰겠다.”처럼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원인, 이유의 의미가 된다.

(1996)의 “하고”, 이카라시[五十嵐孔一](1997,1998)의 “해서”, “하니까”, “하느라고”, 우치야마[内山政泰] (1999a)의 “해서”와 “하고” 등의 연구가 있다.

	사전형	“해서”형	문장 중의 의미
단어	“가다”	“가서”	결정 못함
단어결합	“학교에 가다”	“학교에 가서”	(대부분) 동작의 선행
단어결합	“금이 가다”	“금이 가서”	(대부분) 원인

동작동사라도 “학교로 통지가 와서”와 같이 비활동체 주어가 나타나면 원인을 나타내게 되는데, “학교로 통지가 오다”와 같은 결합 역시 단어결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적어도 용언은 그 자체만으로 접속형의 의미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단어결합이라는 구조체를 먼저 이룬 다음, 그 단어결합을 매개로 접속형의 의미 규정에 참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7-5-2. “하고”형과 단어결합

단어결합 유형이 접속형의 의미 규정에 참획하고 있는 양상은 鄭玄淑(1996) 등에서도 확실하게 읽을 수 있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에서는 “악물다”라는 동작의 결과가 남은 상태로 “참다”라는 동작이 행해지면서 “악물다”는 “참다”라는 동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노마[野間秀樹] (1993ac)에서 말하는 “신체동사 결합”, “착용동사 결합”, “소유동사 결합” 등의 주체에의 재귀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결합은 이러한 양태의 “하고”를 실현하는 그룹이라고 鄭玄淑(1996:42-43)은 밝히고 있다.

#### 7-5-3. 타동사 단어결합과 아스펙트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위와 같이 양태의 “하고”를 실현하는 타동사 단어결합의 유형들은 그 대부분이 아스펙트형 “-고 있다”를 취하면

14) 러시아 문법에서는 주어는 단어결합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어와 술어가 주어지자마자 동사가 활용형 즉 정동사(定動詞)가 될 수밖에 없는 러시아어에서는 주어를 단어결합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동사는 반드시 어떤 범성(modality)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결과의 계속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이다:

[신체동사 결합]

“눈을 감고 생각했다.” : “눈을 감고 있다.”

[착용동사 결합]

“흰 옷을 입고 외출했다.” : “흰 옷을 입고 있다.”

[소유동사 결합]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체에의 재귀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위와 같은 단어결합 유형과는 달리, 객체적인 대상에의 작용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은 “하고”형에서는 동작의 선행을 나타내고 “하고 있다”형을 취하면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는 점을 비교해 보자:

[부여동사 결합]

“도장을 찍고 악수했다.” : “도장을 찍고 있다.”

[가공동사 결합]

“땅을 파고 보물을 묻었다.” : “땅을 파고 있다.”

[생산동사 결합]

“사진을 찍고 헤어졌다.” : “사진을 찍고 있다.”

단어결합 유형이 문법형태를 취할 때 그 의미 실현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7-5-4. 형태제약과 단어결합

단어결합은 형태상의 제약에도 깊은 관계를 가진다. 노마[野間秀樹] (1993b:19-22)에서는 “-아다가/-어다가”형 즉, “해다가”형은 일부 타동사

만이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한 후 그 중 “사람을 데리다” 등 “대인동사 결합”, “돈을 훔치다” 등 “탈취동사 결합”, “돈을 가지다” 등 “소유동사 결합”을 비롯한 극히 제한된 단어결합에서만 “헤다가”형이 가능함을 밝혔다.

단어결합을 이룰 경우에, 종래는 단순히 개개의 단어가 가지는 성질이라 생각되었던 여러 가지 성격들이 사실은, 단어가 아닌 단어결합의 성질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문법형태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는 이와 같은 단어결합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훨씬 정확하고 정밀한 기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 7-6. 어휘론에 대한 단어결합론의 기여

한국어 어휘론은 沈在箕(1982), 김광해(1995) 등 어휘사나, 어휘론의 개론적인 업적은 있으나 우메다[梅田博之](1976)와 같은 어휘의 의미 기술을 지향하는 논고는 상대적으로 드문 것 같다. 의미 기술 연구는 주로 사전학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해 온 감이 있다. 앞으로 어휘의 정밀한 의미 기술은 비모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당연히 활발해지리라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단어결합론은 방법론적인 큰 수로를 열어 준다. 즉 위에서 문법형태에 대한 단어결합의 연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단어 그 자체의 의미는 단어결합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어휘의 의미 기술은 당연히 단어결합과의 연관 속에서 그려져야 될 것이다.

#### 7-7. 대조언어학적인 연구에서의 단어결합론의 의의

어휘론과 문법론을 비롯한 한일 대조 연구는 기존의 여러 연구의 제일단계, 즉 출발 단계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어휘의 정밀한 대조, 통사론적 대조, 그 어느 쪽에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다.

단어결합의 대조 연구는 사전학에서도 유용하다. 사전의 기술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적인 단어결합과 관용구를 구별한 다음, 사용빈도가 높은 전형적인 단어결합과 사용빈도가 적은 주변적인 단어결합에 관한 순차적이고도 목적의식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단어의 대응관계는 단지 고립된 단어끼리의 대조가 아닌 단어결합으로서의 대조가 필요하다.<sup>15)</sup>

한국어와 일본어는 통사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단어의 일대일 대응을 보이는 단어결합도 많은 한편, 일대일 대응이 성립되지 않는 예도 많다. 다음은 단어끼리는 서로 대응하지만 격표시의 대응이 성립되지 않는 예이다:

시내에	구경을	가다
sinai-ni	kenbutu-ni	iku
lit:( 시내에)	( 구경에)	(가다)

단어의 층위에서는 대응하나 단어결합의 층위에서는 의미적인 대응이 성립되지 않는 예도 흔히 볼 수 있다:

전화를	받다
denwa-ni	deru
lit: (전화에)	(나오다)

은행에서	돈을	찾다
ginkoo-de	okane-o	orosu
lit: (은행에서)(돈을)		(내리다)

15) 한-일 단어결합 사전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으나 근년에 발간된 홍재성 외(1996),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국립국어연구원(1999) 등은 앞으로의 2개 언어 사전을 편찬하는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사전을	찾다	
ziten-o	hiku	([모르는 단어를] 사전을 찾다)
ziten-o	sagasu	([읽어버린] 사전을 찾다)

위와 같은 예들은 종래 단어의 단순한 “용법” 차이로서 파악되어 왔던 것인데 이것들은 분명히 사상(事象)에 대한 명명 양상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어결합의 대조로서 기술되어야 할 대상이다. 대조연구에도 단어결합이라는 시점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 7-8. 단어가 문장을 형성하는 장치로서의 단어결합

이리하여 우리는 단어가 단어결합을 이루며 문장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단어결합은 단어와 단어의 단순한 결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를 수식하면서 새로운 명명 기능을 지니는, 단어보다 한 층 상위의 단위이다. 그리고 법성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장보다 한 층 하위의 단위이기도 하다. 한국어 단어결합은 어휘론과 문법론을 이어 주는 풍요로운 매개 장치인 것이다. 언어구조상에서의 이러한 단어결합의 기능이야말로 소위 collocation이나 관용구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어결합의 결정적인 비중을 말해 주는 것이다. 종래 어휘 그 자체의 성질로 생각되어 왔던 많은 언어사실들이 실은 단어결합이 가진 성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단어결합론의 실천은 이제 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1) 한국어로 쓰인 문헌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공업출판사(1979;1985), 《우리말 어휘 및 표현》, 공업출판사; 도쿄: 학우서방.



-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79), 《조선문화어문법》,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 《조선어문법》 1, 평양: 과학원 언어 문학연구소.
-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언어학 연구실(1963), 《조선어문법》, 2 평양: 과학원 출판사.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서울: 민음사.
- 김광해(1995), 《어휘 연구의 실제와 응용》, 서울: 집문당.
- 金宗澤·南星祐(1988;1996), 《國語意味論》, 서울: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 김진해(2000), 《연어(連語)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남기심(1993), 《국어 조사의 용법-‘-에’와 ‘-로’를 중심으로-》, 서울: 서광학술 자료사.
- \_\_\_\_\_ (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南永信 엮음(1987), 《우리말 분류사전》, 서울: 한강문화사.
- \_\_\_\_\_ 엮음(1989), 《우리말 분류사전 풀이말편》, 서울: 한강문화사.
- 남윤진(2000),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서울: 태학사.
- 노마[野間秀樹](1993b) ‘現代韓國語의 接續形 <-다가>에 對하여- aspect · taxis · 用言分類, 《朝鮮學報》 第149輯, 天理: 朝鮮學會.
- \_\_\_\_\_ [野間秀樹](1993c), 現代韓國語의 對格과 動詞의 統辭論, 第20回 國語學會 共同 研究會 發表要旨.
- \_\_\_\_\_ [野間秀樹](1996a), 現代한국어의 대우법 체계, 《말》 제21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 \_\_\_\_\_ [野間秀樹](1996b),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의 현대한국어 문법론·어휘론 연구-言語事實主義의 전개, 《韓國文化》 18, 서울: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 \_\_\_\_\_ [野間秀樹](1996c), 한국어 문장의 계층구조, 《언어학》 제19호, 서울: 한국언어학회.
- \_\_\_\_\_ [野間秀樹](2002),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서울: 태학사.
- 박소영(2000), ‘양태의 연결 어미 ‘-고’에 대한 연구, 《언어학》 제26호, 서울: 한국언어학회.
- 박용수 엮음(1989), 《우리말 갈래사전》, 서울: 한길사.
- 서상규, 강현화, 유현경 외(2000),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 사업 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 서정수(1996), 《국어문법(수정증보판)》, 서울: 한양대학교출판원.
- 宋喆儀(1992),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서울: 太學社.

- 신현숙(1986),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서울: 集文堂.
- 유재원 엮음(1985), 《우리말 역순사전》, 서울: 정음사.
- 유타니[油谷幸利](1978), 現代韓國語의 動詞分類-aspect를 중심으로, 《朝鮮學報》 第87輯, 天理: 朝鮮學會.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李秉根·徐泰龍·李南淳編(1991), 《國語學講座1 文法(I)》, 서울: 太學社.
- 李玟燮·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서울: 學研社.
- 이흥식(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 月印.
- 임흥빈·장소원(1995), 《國語文法論》 I,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大東文化研究》 30, 서울: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 趙義成(1997),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에 대하여, 《朝鮮學報》 第163輯, 天理: 朝鮮學會.
- 최윤갑·리세룡 편저(1984), 《조선어학사전》,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연구》, 서울: 탐출판사.
- \_\_\_\_\_(1996),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두산동아.

## (2) 일본어로 쓰인 문헌

- 가도와키[門脇誠一](1982), 日本語と朝鮮語の語彙, 《日本語教育》 48, 東京: 日本語教育學會.
- 간노[菅野裕臣](1982c), (朝鮮語의 語彙 I) 語彙および語構造, 《講座日本語學》 12, 東京: 明治書院.
- \_\_\_\_\_[菅野裕臣](1984), 北朝鮮의 文法論とソ連言語學, 第10回 朝鮮語研究會 發表要旨, 東京: 朝鮮語研究會.
- \_\_\_\_\_[菅野裕臣](1988), 文法概說, 간노[菅野裕臣] 외(1988)에 수록.
- \_\_\_\_\_[菅野裕臣](1995), 朝鮮語語彙의 클래스를めぐって, 《朝鮮文化研究》 第2號, 東京: 東京大學文學部 朝鮮文化研究室.
- \_\_\_\_\_[菅野裕臣] 외[早川嘉春·志部昭平·浜田耕策·松原孝俊·野間秀樹·鹽田今日子·伊藤英人共編, 金周源·徐尙揆·浜之上幸 協力](1988), 《コスモス朝和辭典》, 東京: 白水社.
- 權在淑(1992a), 現代朝鮮語의 用言의 接續形-니까について, 《Lingua》 第3號, 東京:

上智大學 一般外國語.

權在淑(1994a), 現代朝鮮語の用言の接續形Ⅲ (-아/-어) について, 《Lingua》 第5  
號, 東京: 上智大學 一般外國語.

\_\_\_\_\_(1994b), 現代朝鮮語の接續形Ⅲ-서 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52輯, 天理: 朝  
鮮學會.

노마[野間秀樹](1988), '〈하겠다〉の研究—現代朝鮮語の用言の mood 形式をめぐっ  
て', 《朝鮮學報》 第129輯, 天理: 朝鮮學報.

\_\_\_\_\_[野間秀樹](1990), '朝鮮語の名詞分類—語彙論・文法論のために', 《朝鮮學報》  
第135輯, 天理: 朝鮮學報.

\_\_\_\_\_[野間秀樹](1993a), '現代朝鮮語の對格と動詞の統辭論', 《言語研究》 Ⅲ, 東京:  
東京外國語大學 語學研究所.

\_\_\_\_\_[野間秀樹](1994b), '現代朝鮮語の語彙分類の方法', 《言語研究》 Ⅳ, 東京: 東京  
外國語大學.

\_\_\_\_\_[野間秀樹](1997a), '朝鮮語と日本語の連體修飾節(冠形節)構造', 《東京大學文學  
部朝鮮文化研究室紀要》 第4號.

\_\_\_\_\_[野間秀樹](1997b), '朝鮮語の文の構造について', 《日本語と外國語の對照研究  
3 日本語 朝鮮語》, 東京: くろしお出版.

\_\_\_\_\_[野間秀樹](2000), 《至福の朝鮮語》, 東京: 朝日出版社.

마쓰모토[松本泰丈] 編(1978), 《日本語研究の方法》, 東京: むぎ書房.

무라타[村田寛](1997), '〈했었다〉の研究—現代朝鮮語の時間の表現—', 《朝鮮學報》  
第165輯, 天理: 朝鮮學會.

미나미[南不二男](1974), 《現代日本語の構造》, 東京: 大修館書店.

미즈타니[水谷靜夫] 編(1983), 《文法と意味》 I, 朝倉日本語新講座 3, 東京: 朝倉書店.

스즈키[鈴木重幸](1972;1982), 《日本語文法・形態論》, 東京: むぎ書房.

시바[柴公也](1994), " ~(으)면서 "의 의미와用法 について, 《熊本學園大學文學・言語  
學論集》 第1卷, 第1・2號, 熊本: 熊本學園大學.

언어학회[言語學研究會] 編(1979), 《言語の研究》, 東京: むぎ書房.

\_\_\_\_\_[言語學研究會] 編(1983),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東京: むぎ  
書房.

오쿠다[奥田靖雄](1985), 《ことばの研究・序説》, 東京: むぎ書房.

우메다[梅田博之](1976), 《韓國語》 I・II, 東京: 東京三中堂.

\_\_\_\_\_[梅田博之]・무라사키[村崎恭子](1982a), '現代朝鮮語の文構造', 《講座日本語  
學》10, 東京: 明治書院.

- 우메다[梅田博之]·무라사키[村崎恭子](1982b), 現代朝鮮語의 格表現, 《講座日本語學》 10, 東京: 明治書院.
- 우치야마[内山政春](1999a), 現代朝鮮語의 接續形-어서와-고에 對하여, 《朝鮮學報》 第173輯, 天理: 朝鮮學會.
- 이시와타[石綿敏雄]·오기노[荻野孝野](1983), 結合價から見た日本文法, 《文法と意味》 I, 朝倉日本語新講座 3, 東京: 朝倉書店.
- 이카라시[五十嵐孔一](1997), 原因·理由を表す接續形 “-(아/어)서”와 “-(으)니까”에 對하여-從屬節의 包含構造를 中心にして-, 《朝鮮學報》 第162輯, 天理: 朝鮮學會.
- \_\_\_\_\_ [五十嵐孔一](1998), 現代朝鮮語의 接續形<-느라고>에 對하여-‘タクシス’와 ‘圖と地’의 觀點から-, 《朝鮮學報》 第169輯, 天理: 朝鮮學會.
- 이토[伊藤英人](1989), 現代朝鮮語動詞의 非過去テンス形式의 用法에 對하여, 《朝鮮學報》 第131輯, 天理: 朝鮮學會.
- 鄭玄淑(1996), 現代朝鮮語의 接續形-고에 對하여-その意味·用法를 めぐって-, 《朝鮮學報》 第161輯, 天理: 朝鮮學會.
- 趙義成(1994), 現代朝鮮語의-에서格에 對하여, 《朝鮮學報》 第150輯, 天理: 朝鮮學會.
- 지무라[千村哲也](1987), 現代朝鮮語의 格語尾(-로)에 對하여, 東京外國語大學卒業論文, 東京: 東京外國語大學.
- 陳滿理子(1996a), 現代朝鮮語의-로格에 對하여-單語結合論의 觀點から-, 《朝鮮學報》 第160輯, 天理: 朝鮮學會.
- 하마노우에[浜之上幸](1991), 現代朝鮮語動詞의 Aspect的 分類, 《朝鮮學報》 第138輯, 天理: 朝鮮學會.
- 韓南洙(1966), 現代朝鮮語에 對하여 格助詞-에게(-ege)에 對하여, 《言語의 研究》, 東京: むぎ書房, (1976)所收.

### (3) 영어, 러시아어로 쓰인 문헌

Akademija nauk SSSR(1954), “Grammatika russkogo jazyka”, Tom II Sintaksis, Vinogradov, V.V.(red.) Moskva: Izdatel'stvo akademii nauk SSSR(간노 [菅野裕臣] 부분역(1990-1), “ロシア語文法” 동경외국어대학 강의자료, 비공간).

\_\_\_\_\_ (1982), “Russkaja grammatika” Tom II Sintaksis. Moskva: Izdatel'stvo Nauka(간노[菅野裕臣] 부분역. (1990), “ロシア語文法” 동경외국어대학 강의자료. 비공간)

Jarceva, V. N.(red.)(1990), "Lingvisticheskiy enciklopedicheskiy slovar", Moskva: Sovetskaja enciklopedija.

Kholodovich, A. A.(1954), "Ocherk grammatiki korejskogo jazyka", Moskva: Izdatel'stvo literatyry na inostrannykh jazykakh.

Martin, S. E.(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Tokyo: Charles E.Tuttle Company.

Sohn, Ho-min(1994), *Korean*, London: Routledge.

Vachek, J.(ed.)(1964), *A Prague School Reader in Linguis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일본 183-8534 東京都 府中市 朝日町 3-11-1 東京外國語大學 大學院 朝鮮語學研究室]

E-mail: noma@tufs.ac.jp

URL: <http://www.tufs.ac.jp/ts/personal/nomahideki/index.shtml>